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

차 례

1.[보안인 인터뷰]

선순환을 위한 정보보안 생태계 마련 시급염홍렬(순천향대)

2.[보안인 기고] 백진성백진성(MDsoft)

3.[보안인 칼럼] 정보보안기사 제1회 시험 후기전주현(보안인닷컴)

디자인: BK.Kim

편집: 전주현

발행: 전주현

• 심볼 마크에는 다음에서 제공한 [다음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http://info.daum.net/Daum/info/introduceOfCI.do>)
• 문서에는 네이버의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http://www.boanin.com>

발행인의 변

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 전주현입니다.

남부지방은 연일 40도를 오르내리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열정을 가진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 도 이번 24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24호에는 순천향 대학교 염홍열 교수님께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소중한 말씀을 주셨고, 청소년 보안기업 MDsoft 백진성 대표가 기고를 해 주었습니다. 참여 해 주시는 분들과 발행될때마다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지난 7월달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필기 시험이 전국에서 시행이 되어 응시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8월달에는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 은 국내외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보안인, 보안 교육센터, 보안기업, 보안제품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읽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 **[보안인]** 이 빛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번쯤 자신의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e-매거진 **[보안인]**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 참여 하시고 원고접수나 문의는 boanin@naver.com 이나 magazine@boanin.com 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관련하여 다양한 사이트에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BoanN**

보안/자격증, 정보보호자료공유 커뮤니티 보안인닷컴 : <http://www.boanin.com>
 전주현 개인정보보호길라잡이 <http://www.privacy.pe.kr> <http://www.privacyguide.co.kr>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보안소식 접하기 <http://www.facebook.com/jeonjuhyun>

보안인닷컴 운영자 엔시스올림

[보안인 토막공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은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 보안에 대한 이야기, 자격증 취득후기, 면접등 다양하게 보내 주시면 더 많은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boanin@naver.com 입니다. -보안인닷컴 편집자 주

[보안시 인터뷰]

순순환을 위한 정보보안 생태계 마련 시급 (순천향대학교 염홍열 교수)



안녕하세요. 염홍열 교수님. 국내 최대 보안커뮤니티 ‘보안인닷컴’ 운영자 전주현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

위낙 유명한 교수님이라 대부분 알고 있지만 혹시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보안인닷컴’ 회원 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0년도 한양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2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서, 1990년부터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부문(ITU-T) 연구반 17(SG 17) 부의장, ITU-T SG17 작업그룹 3 (WP3) (ID 관리 및 클라우드 보안) 의장을 맡아서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에서 2008년 2월까지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정보보호 분야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정보보호 PM으로 활동했고, 2011년도 국내 최고의 정보보호분야 학술단체인 한국정보보호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헌법재판소, 서울시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서 정보보호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순천향 대학교 정보보호학과가 타 대학의 정보보호관련 학과보다 조금 일찍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과가 언제 개설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과 소개(연혁과 학과구성, 특징) 좀 부탁드립니다.

A

2001년 학부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정보보호학과’라는 이름으로 학과를 개설했고, 2000년에 산업정보대학원에 석사과정 정보보호학과를, 그리고 2001년에 일반대학원에 석박

사 과정 정보보호학과를 개설했습니다. 학부 및 대학원에서는 당시로서는 선각자적으로 설립해 많은 정보보호 인력을 배출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학부 정보보호학과 정원은 40명이며, 4명의 교수들이 사이버보안, 시스템 보안, 암호이론, 응용보안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 시큐리티퍼스트 등 3개의 전공 학과동아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 졸업생이 300 명에 육박하며, 주로 정보보호 산업체, 공공 기관 등에 우수한 정보보호 인력을 공급해 왔습니다. 우리 학과 교육 목표는 ‘실무 능력을 갖고 윤리성이 있는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특별히, 정보보호 산업체들이 요구하는 실력을 갖춘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최상명, 하동주, 최현우, 김태영)은 2010년 방통위 주최 해킹방어대회에서 제 이름을 딴 ‘Youm’s student’ 라는 팀명으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2013년 기무사가 주최한 국방해킹방어대회에서 우리 학과 졸업생 2명 (최병희 중위, 황희훈 중위)이 1등상과 2등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학부 학생 (김동석, 김학수)으로는 매우 드물게 ‘3.20 사이버 테러에 이용된 악성 코드 분석 및 대응방안’ 이라는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 취업률은 매우 높고, 많은 정보보호 관련 기업과 기관에서 우리 학과 졸업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은 대표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연구원, 안랩, 하우리 등 정보보호 관련 업체와 문화관광체육부등의 정부기관, 사이버 사령부 등의 국방 분야 에서 국가 사이버 공간의 국가 정보자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도 국, 내외 정보보호정책이나 연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해외 정보보호 관련하여 연구 활동 시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 해외에서 정보보호 연구 분야 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저는 정보보호 응용보안 분야 국제 표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ITU-T SG17 국제 표준화 작업에 당시 SG 17 연구과제 9의 부 라포처로서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인증기술, IPTV 보안, 스마트 그리드 보안, 클라우드 보안, 사이버 보안 등입니다. 특히, 이들 분야의 연구 논문 발표, 특허 출원 및 등록, 그리고 국내 및 국제 표준 개발을 통해 이론적 보안 기술을 실세상에 적용하게 하는 정보보호의 응용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양대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T SG17 의 부회장과 ISO/IEC

JTC1/SC 27에서 에디터로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디 관리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의 국제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ITU-T SG17 의 WP 3의 의장을 맡고 있고, ISO/IEC JTC 1/SC 27에서는 개인정보관리체계 국제 표준인 ISO/IEC 29151의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제표준 에디터로서 10건의 ITU-T 표준(X.1121, X.1111, X.1034, X.1151, X.1191, X.1193, X.1196, X.1197, X.sup8, X.sup9, X.sup10)을 개발한 바 있으며, ISO/IEC JTC1에서도 1건의 ISO/IEC 27033-4(FDIS)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좀비 PC 방지 기술인 DNS 싱크홀 기술을 ITU-T 부속서(X.sup8)로 개발했고, IPTV 보안에 이용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국산 암호 표준인 SEED, KCDSA 등을 ITU-T X.1197 표준에 포함했으며, IPTV 보안 키 관리 프레임워크 표준인 ITU-T X.1193을 개발했으며, 모바일 IPTV 보안 기술을 X.1196 으로 표준화 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정보보호지수를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X.csi(X.1210)을 국제 표준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3-2. 해외 정보보호 연구 활동하시면서 가장 애로점은 어떤 것인지요?

앞에서 소개했듯이, 제가 하고 있는 연구 활동이 정보보호분야의 국제 표준화 활동인데요. 가장 큰 애로점은 표준화 활동 결과가 교수 업적 평가 결과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가 갖는 국제 표준을 개발 완료하더라도 저의 업적 평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은 저에게는 애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 또한, 가장 보람된 점은 무엇인가요?

ITU-T에서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 표준화로 연결하는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건 이상의 ITU-T 표준을 개발했고, 현재 양대 공적 표준화 기구인 ITU-T 와 ISO/IEC JTC 1/SC 27에서 7 건 이상의 국제 표준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정보보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ITU-T에서 모바일 보안 표준 2건, IPTV 보안 표준 3건, 인증 프로토콜 표준 2건 등의 국제 표준 개발했고 현재 5건 이상의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의 개발을 통해 ITU-T 190개국 이상의 ITU 회원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개발했다는 점이 커다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는 2012년 일본 전기정보통신학회(IEICE)에서 개최한 학회(SCIS-2012)에 초대되어 학회 최초로 “한국의 정보보호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키노트 발표를 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정보보호 기술과 조직 체계 및 시스템,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 그리고 보호대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1990년 말에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을 국내에서 처음 창설하는 TF에 참여했고, 2000년 중반까지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의 운영위원회 활동을 수행한 바 있어서, 오늘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작은 역할을 했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국내 정보보호시장이 작아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정보보호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조언 한마디 해 주신다면?

A 저는 2011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산업협회간의 컨퍼런스에 매년 참석해 한일간 정보보호산업협회 간 교류협력 증진과 협력 모색을 위한 패널 토론의 사회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보호 제품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네트워크 보안, 운영체제 보안, 메일보안 등의 보안 제품 분야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일본에서 상기 분야의 국내 기업의 지출이 2012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13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RSA 컨퍼런스에 출품한 안랩, 파수닷컴 등의 국내 보안 기업에 대한 외국의 보안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보호 시장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 관리 및 관제 등의 보안 서비스 시장의 크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에 전략적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제품의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 서비스와 연계되어 현지화를 통해 진출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은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규제 및 법 준수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선진국 시장 진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효율적인 세계 시장 진출 방법은 현지 법인의 설립을 통해 현지화를 통한 미국, 영국 등의 공공 분야 정보보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도국을 위한 정보보호 시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는 바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개도국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가 국제 표준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국제 표준이 되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 위상과 여러 가지 수준을 평가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국제 표준 진행 사항과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 표준화는 양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ITU-T에서는 X.gpim 이라는 표준이 개발되고 있고, ISO/IEC JTC1에서는 ISO/IEC 29151 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관련 2개의 국제 표준의 개발을 책임지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한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국제 표준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보안 대책을 모아서 국제 표준의 보안 대책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이 표준에는 한국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통제를 반영하며,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통제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표준은 2016 년도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 국가 위상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제가 ‘보안인닷컴’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비기너나 주니어분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정보보호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많은 제자를 양성 하고 계시니 동일한 질문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막 보안에 입문하려는 비기너나 주니어에게 해 줄 수 있는 보안 공부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진정한 의미의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술, 프로그래밍 기술, 네트워크 기술은 물론 암호학 등 정보보호 기술과 관리체계 등의 법제도를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정보보호 전문가는 화이트 해커로 통용되지만, 해킹 대응 기술은 정보보호 기술에서는 하나의 일부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분야의 기본에 충실해 학부 과정에서 이를 위한 기초 학문을 연마하고 나서, 그 다음 정보보호관련 고급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보보호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보보호 기술의 활용이 사이버 국방, 사이버 수사, 사이버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고 윤리성을 갖는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공인인증서’ 와 ‘액티브엑스’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해법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먼저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는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ITU-T에서 개발한 ITU-T X.509 라는 표준에 근거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에 이용되는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국제 표준에 기반

하고 있으며 암호학적으로는 어떤 보안 취약성도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액티브 엑스는 이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운영관리 기술입니다. 액티브 엑스 기술은 MS(마이크로소프트)의 IE(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웹 호환성 문제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안 취약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액티브 엑스 기술의 문제는 웹 호환성 문제와 보안성 문제입니다.

따라서 액티브 엑스 기술은 웹 서버에서 웹브라우저로 파일 접근,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실행 등의 소프트웨어를 배포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프트웨어 배포가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앱 스토어나 클라우드 스토어를 통해 배포 되는 등 소프트웨어 배포의 다양한 대체 수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액티브 엑스 기술 이용 없이 구현된 인터넷 뱅킹 솔루션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USIM 카드 등과 같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활용하면, 소프트웨어 배포를 위한 액티브 엑스 기술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액티브 엑스 기술의 대체 수단의 활용을 통해 국내 인터넷 웹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웹 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바 애플릿 등의 다른 플러그 인 기술을 활용하고, 하드웨어보안 모듈의 활용을 통해 배포의 문제를 해결하며, HTML 5 국제 표준화를 통해 웹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보안분야는 빠른 기술변화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니어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 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의 정책이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컨설팅, 감리등 관리적 보안에 관심을 가질텐데요..개인에 따라 편차가 조금 있겠지만 보안분야 시니어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거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보안 시니어 분들에게 보안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쉽지 않을 것이라 데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안에서 법 준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고, 보안은 기술적 보안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적 대책과 물리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니어 분들에게도 보안은 자신의 꿈을 완성할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 보안 대책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보호책임자(CISO)을 임원급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한 것은 시니어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책임은 크지만, 이에 걸맞은 권한을 갖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책임자는 정보기술, 컴퓨터 기술, 정보보호 법제도, 암호 기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식의 습득을 요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사적 차원에서 컨설팅, 보안 감사, 보안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며칠 전 신문에서 보니 지방대 미달학과가 캠퍼스를 인서울(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하는)로 옮겼더니 경쟁률이 8:1이라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한 가운데 보안에 대한 인력 양성이나 교육의 기회는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불균형등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보러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도권중심의 보안정책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한 지역에 관련 업체의 역할이나 정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A

제가 속해 있는 대학도 충남에 속해 있는 지방 대학이어서 이 문제를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성과 단기적인 성과에 우선하다보면 지방에서 묵묵히 정부 지원 없이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지방의 많은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에 대한 지원에 인색했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인력 양성 지원도 수도권 중심의 비정규 교육 기관 위주로 집중되다 보니, 앞에서 언급하다시피 정보보호 전문가는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하여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여 인력 양성도 정규교육기관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정규 교육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력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많은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필요함을 고려하면 지방을 위한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보보호 지원과 관심의 지방과 수도권 지역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의 균형성과 적재성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지역 권역별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정보보호 인력 지원의 지역 등가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보안인닷컴’ 커뮤니티의 역할이나 회원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이렇게 지면을 통해 회원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보보호 기술은 국가 안보, 경제 사회의 안전, 국민의 사이버 활동의 보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과 법제도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우수 인력이 모이고, 이 우수 인력이 적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보보호 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갖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조기 정보보호 분야 우수한 인재를 모이게 하는 역할을 ‘보안인닷컴’ 커뮤니티가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보안인닷컴’ 커뮤니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꺼이 보안인닷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보안사 기고] 보안 = 보험의 개념 No!! (MDsoft 백진성)

잘 막으면 본전, 뚫리면 손해? 보험성격의 보안

MDsoft 대표 백진성¹⁾

언론/방송사,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 사이버 테러가 발생 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사이버 테러'는 최근 급격하게 고도화 되는 해킹공격/기술 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이버 범죄'의 단순 범법행위로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단순 해커자신의 인지도 상승을 목적이 아닌 타겟(기관, 기업, 국가 등)에 대한 정보유출, 전산망 마비 등의 목적이 대부분이다.

2013년 4월에 발생한 은행 전산망 공격은 사전에 타겟(은행)에 대한 관찰(모니터링)을 통하여 타겟에 대한 취약한 부분(취약점)을 찾는 과정을 오랜기간 수행한다. 그런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모두 획득 하면 이로써 해커는 타겟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해킹 공격을 시도하여 자신(해커)가 원하는 바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 사고는 발생하였다.

위 사건에서 짚고가야 할 점이 있다.

첫번째로, 전산망 공격을 당한 은행은 자산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목적을 예산을 투입하여 혹시 있을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지만 매년 보안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기업의 대표(오더) 분들 관점의 보안은, 가시적이지도 않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 지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안예산을 삭감한다. 오히려 보안을 더욱 강화하지 않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안투자를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안사고 발생시 더욱 큰 피해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두번째로, 은행 내 보안전문가 및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인력 부족하였고, 보안을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로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보안은 사내에서 전담 팀을 꾸려 관리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 하기 전만 해도 보안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아웃 소싱이란 기술이나 전문영역에 있어서 부족 한 부분 업무(담당)를 전문분야 회사에 관리, 문제해결 등을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전산망 공격을 당한 은행은 매년 보안예산을 삭감으로 인하여 손실 피해가 많았다.

'보안=보험의 개념'의 생각으로 대비하였다가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는 사실 수도 없이 많다. 가장 근래에 발생 한 '6.25 사이버 테러', '3.20 전산망 마비 사태', '3.4 DDoS' 등 세상에 알려진 사건 외에 많고도 많다.

¹⁾ MDsoft는 청소년 보안기업입니다.

3. 20 전산망 마비 사태도 평소 보안 및 정보보호에 대해서 정부기관 등에서 관심만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 대응을 하여서 별 사건 발생 없이 무난하게 넘어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전산망 마비 사태 발생 약 한달 전, 국내 웹 보안 전문기업에서 3. 20사태 발생 악성코드 샘플을 최초 감지 하였고 최초 감지 후 언론에 충분한 사태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널리 알렸음에도 불과하고 정부기관 등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뿐인 대응책을 펴지 못 한것이 너무나 아쉽다.

3. 20전산망 마비 사태는 IT강국 대한민국의 보안 현 위치를 알려주는 일시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일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고 또 다시 안티바이러스(백신, Anti-Virus)와 같은 솔루션 의존, 보안 아웃소싱 등 현 위치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였던 것이다.

보안=보험의 개념 No!

보험의 개념은 더 이상 정보보호에는 큰 기대 효과를 불러오지 못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보험의 개념으로 막아 낼 수 없다)

기업과 관공서 등은 더 이상 안티바이러스(알려진 악성코드 탐지) 솔루션에 의존 하지 말아야 한다. 악성코드는 날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되어 알려진 악성코드 탐지인 안티바이러스 의존도를 낮추고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 탐지(UnKnow)솔루션을 도입하여 알려지지 않고, 변종 악성코드에 대해서 대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안을 아웃소싱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 전담 팀 및 정보보호 전문가를 사내 별도로 배치하여 24×365(24시간 365일)형태로 언제 어디서 발생 할지 모를 사태에 대비를 해야 한다.

침해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 할지 모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가시적이지 않다고 해서 보험처럼 준비/대응 하여선 안된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의도와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안시 칼럼]

국가기술 자격증 ‘정보보안기사 1회 시험후기’

(보안인닷컴 전주현)

2013년 7월6일 전국에서 국가기술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시험이 동시에 시행이 되었다.

정보보안기사 시험은 오전에 시행이 되었으며,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오후에 각각 시행이 되었는데 수험생이 1만명 이상이나 접수했다고 하니 보안의 관심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보통 객관식 필기 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회차가 거듭 될수록 다양한 문제가 축적이 되어 시험의 안정화가 될 듯하다. 이제 첫회 시험의 비밀 문이 열렸으니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몇가지 조언을 감히 해 보고자 한다.

1. 제1회 정보보안기사 출제 경향 분석 총평

전체적으로 그리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으나 일부 문제는 깊이 있는 문제가 변별력을 가지기 위하여 출제되었다. 특히 전공자, 비전공자 모두 쉽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물론 일부는 쉽게 합격한 사람도 있으나 불합격 한 수험생도 제법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기본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거나 파악해야 선택 할 수 있는 개념문제들이 출제되어 기초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시험 출제시 난이도 조절을 위하여 상.중.하의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중.하 문제는 모두 실수 없이 선택할 수 있었다면 무난하게 합격 가능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중.하 문제라도 확실한 개념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2. 과목별 기출문제 출제분석

가. 시스템보안

문제출제시에 난이도 조절을 위하여 상,중,하에 대한 문제출제 수준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하 문제는 다소 평이 하였으나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운 문제로 출제 되었다. 운영체제, 클라이언트보안, 서버보안에 대한 부분을 골고루 숙지해야 하며, 특히 시스템보안에서 각종 유틸리티도구(툴)에 대한 특성과 옵션등에 대하여 잘 정리하시길 바란다.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메모리,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한 문제는 없었으며, 교착상태(데드락)과 같은 다소 기존에 타 자격증 시험등에서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은 제외 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많이 출제된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다. 건성으로 알고 있었다면 확실히 숙지 하도록 하자.

로그분석이나 파일시스템부분에서는 예상했던 바 대로 문제가 출제 되었다.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여 학습하길 바란다.

나.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문제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보이지 않았으나 역시 중.하 문제는 대부분 평이한 반면에 상 수준의 문제는 깊이 있는 공부가 요구 되는 문제가 있었다.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문제나 방화벽 구축방법에 대한 문제는 역시 그 중요성 때문에 출제가 되었으며, 포트스캔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었다. 특히 각종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알고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네트워크 과목도 기초적인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문제가 많았으며, 기초적인 개념이 안 갖추어졌다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다. 어플리케이션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는 FTP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현상이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수험생의 보안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데 변별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아는 사람은 모두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두 틀리게 되는 것이다.

시험출제기준에 따라 골고루 출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과목이다. 특히 SSL 프로토콜 핸드셰이킹 같은 부분은 심도 있는 문제로 프로토콜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맞히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이제는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것이다.

라. 정보보안일반

정보보호일반은 암호학이 있어서 암호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안된 수험생은 가장 어려워 하는 과목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으나 용어자체가 어려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지만 그리 깊이 있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고득점 한 과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렵더라도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암호학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숙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최소한 보안에 대한 보호해야 할 유,무형 자산이 어떻게 압,복호화 되는지 기술적 이해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 정보관리 및 법규

정보보안기사 수험생에만 해당하는 과목으로 점차 관리적 보안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위험분석 방법이나 위험, 위협등 기초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 되었으며, 법령에서는 용어의 문제나 법령 본문에서 요구하는 개념적 단어들 출제 되었다.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자칫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실수 할 수 있는 과목중에 하나이다. 실질적 현장에 경험이 없는 수험생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며, 최근 관리적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어 등한시 할 수 없는 부분중에 하나이다. 법률 용어, 주요 요구사항, 구성요건등 법률적인 사항은 암기

해야 할 부분은 암기 하는 수밖에 없다. 혹자는 어떻게 모든 법률을 암기하는가 의문을 제시 하겠지만 모두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핵심 포인트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길 바란다.

3. 시험 합격 전략 및 공부방법

3.1 필기시험

기사 시험인만큼 4년제 학부 과정의 깊이 정도에 지식수준을 테스트 한다. 따라서 그리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 개념, 원리, 프로토콜 분석등에 대한 기초보안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와 지문도 초기에는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알면 맞히고 모르면 틀리게 된다. 필기 시험은 실무적인 지식보다는 이론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실기 시험에서 실무적인 지식을 테스트 할 기회가 한번 더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기시험에 기초 지식을 잘 공부해야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바로 실기시험을 대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실기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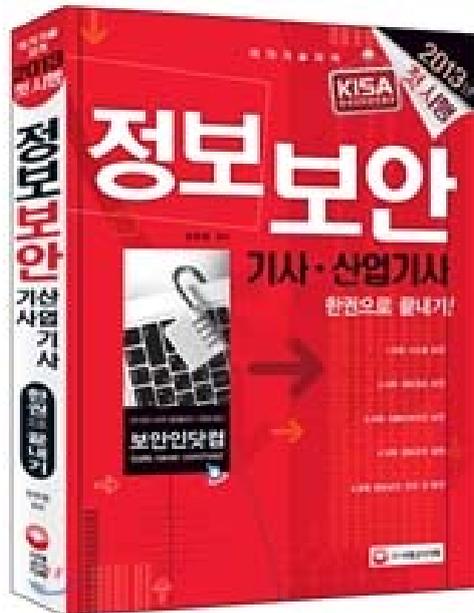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보안관련 국외 자격증의 경우에는 1차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 합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자격증의 경우에는 2차 실기 시험이라는 단계를 한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평소 보안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기 시험은 단답형과 서술 형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채점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객관식에서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글로 지식을 표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학습방법도 고려해 본다면 향후 정보보안기술사가 시행이 되었을 때 훨씬 유리한 학습방법으로 접근 할 것이다.

3. 결론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기술 자격증이라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시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차가 거듭 될수록 시험에 대한 정형화는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검정기관에서 기출문제를 공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필기/실기문제 및 답안 일체 공개가 불가합니다.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이 공개될 경우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보다는 합격요령만 습득하여 단순암기로 자격증을 취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자격자의 현장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합격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기술 자격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의지를 밝힌 만큼 깊이 있는 공부가 요구 된다.

일부 기존 타 자격증 공부방식의 관행으로 접근하여 공부를 한다면 설령 합격하더라도 합격자의 질적저하나 국가기술 자격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전문가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쉽게 얻은 지식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존 SIS (민간 국가공인 자격증) 자격증이 수험생들에게 외면 받은 것을 거울 삼아 신뢰되고 바람직한 보안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Boan人**

<여기서 잠깐 !!>



▲ 정보보안기사 최근 1회 시험분석 및 기출문제 반영한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한권으로 끝내기 교재 온,오프라인 판매중

[보안人 지면을 빌려 드립니다]

이 코너는 구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소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나 공부이야기, 세미나후기, 멘토링, 취업기, 자격증 취득기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축하, 승진, 입학, 졸업사연도 받습니다. 가급적 편집하지 않고 리얼하게 실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boanin@naver.com 으로 보내 주세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 후원안내

매월 무료로 발행되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은 e-매거진 [보안인]에 후원자 명단을 공개해 드립니다.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은행 204-028530-02-201 예금주 : 전주현

2013.05월 기부해 주신분

손찬중님 10만원

2013.05월 기부해 주신분

김정선님 3만원

2013.06월 기부해 주신분

김정선님 3만원

2013.08월 기부해 주신분

김정선님 1만원

* 기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1. 창간호: “wi-fi 무선랜 보안현실 및 사례” - 변동삼
 “안티포렌식 기술의 소개 및 대응기술” - 김석
 “보안의 핵심적 요소이자 취약요소 사람” - 신동일
 “정보보호 기술병의 SIS 1급 합격수기” - 김무현
 “부평스(부산평일스터디)를 소개합니다.” - 김건오
 “모의해킹 고수 어떻게 준비할까” - 조정원
 “중소기업 자가진단압 소개” - 김건오
 “똑똑한 스마트폰 안전하게 사용하기” - 강정웅
 “너무나 갖고 싶었던 명함” - 이재호
 “The 17Th Network Security Workshop-korea 후기 - 이기성
 [축하의말] 보안인식제고는 진정한 정보보호전문가의 첫걸음 - 강용남
 [축하의말] 개인정보보호 최대의 적은 무관심 - 김종구
2. 제2호 : “보안의 시작은 관리체계수립하여 SLC만들어야“ -전주현
 “왜 우리는 위협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가? -문승주
 “ISMS을 통한 기업보안구축사례 - 김용완
 “모의해킹 컨설턴트가 되려면-(2) - 조정원
3. 제3호: “보안 업무의 마지막 단계 - 정보기기의 폐기업무에 대하여” -김재우
 “모의해킹 컨설턴트가 되려면(3) - 조정원
 “소상공인/준용사업자 사업시, 개인정보보호법 어떻게 대처할까?” -전주현
 “2011 KAIST 사이버 워크샵 후기 - 이기성
 “윈도우7 보안의 핵, 사용자 계정(UAC) - 박광수
 “[책리뷰] 내부직원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정보 유출을 막아라 - 이기호
4. 제4호: “KUCIS 하계 워크숍 -김주영
 “APT 해킹에 대하여” -유인재
 “정보보호 동아리 창설 사례” - 이기성
 “제2회 대학생 금융보안캠프” - 임효식

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5. 제5호: “BS10012에서 이야기 하는 PIMS” - 박준용
 “스마트보안과 테스트의 중요성” - 유정훈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냐? 시큐리티냐?” - 전주현
6. 제6호 : “국내 정보보호 자격증 발전방안에 대한 소고” -박준용
 [인터뷰] 한재호 (주)에이쓰리시큐리티 대표이사 -유인재
 [인터뷰]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유인재
 [특별기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애로사항 -전주현
7. 제7호: “[새해특집-1] 정보보호학과 탐방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김승주
 “[새해특집-2] 정보보호업체 탐방 - 안랩(구 안철수연구소) -전주현
 “BackTrack이란? -조정원
 “해킹대회에 대한 소개 - 유인재
8. 제8호: “BackTrack 안드로이드 설치 -조정원,전영재
 “디지털포렌식분석-SANS 문제풀이 - 이준형
 “해킹보안동아리 창설이야기 -국민대학교 - 유인재
 “대학교 4학년 이후의 삶 - 임효재
 “IT특화병, 정보보호기술병 -김주영
9. 제9호: “한국IBM 보안사업부 출범과 그 의의” - 박형근
 “WireLess Security에 대하여” - 권오훈
 “A3시큐리티 세미나 후기” - 김주영
 “[인터뷰] A3아카데미 ” 허아람
 “[인터뷰] 수원대 정보보호동아리 ”FLAG” - 유인재

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10. 제10호: [기고] "주말 Malware Launch Detected!" - 전상훈
 [번역] "모바일 데이터 암호기술" - 임효식
 "CentOS 5.5에서 하드디스크 추가하기" - 전주현
 "모의해킹 방법론" - 조정원
 "신종 MBR파괴 악성코드 분석" - 이규형
11. 제11호 : [기고] "IT기술사 도전해보자" -이이진
 [기고] "해킹,악성코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신원
 [번역] "Security, Privacy and Policy Roundup" -권오훈
 [인터뷰] "기사가 현실을 바꿀때 보람있어요" -장윤정
12. 제12호: [기고] "개인정보보호법 본격시행으로 다시본 국민식별체계" - 이형효
 [칼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과 의미"-전주현
 [매뉴얼] Snort IDS 윈도우버전 설치방법" -박현철
 [화제의 책, 저자 인터뷰] "안철수, He Story" - 박근우
 [기고] "네이트 해킹 사건 승소판결의 의미" - 유능종
13. 제13호: [기고] "보안컨설팅을 지망하는 분들에게" - 신수정
 [칼럼] "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에 거는기대 -전주현
 [인터뷰] "정보보호전문가, 장인정신 가져야" - 최운호
 [인터뷰] "보안의 다양성 보도와 취재원 보도가 최우선" - 길민권
 [기고] 드라마 '유령'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 -유인재
14. 제14호: [기고] "KAIST 악성코드 분석 프로세스" - 임효식
 [인터뷰] "서비스 이용시 프라이버시 사전침해 제거가 최우선" - 이진규
 [인터뷰] "IT경쟁력, 글로벌로 눈을 돌려라 - 이택동
 [인터뷰] "보안책임자 IT역량과 비즈니스 역량 함께 갖추어야" - 차인환

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15. 제15호: [기고]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가 풀어야할 숙제 3가지" - 전주현

[인터뷰] 보안인터뷰 한국인터넷진흥원 - 박해룡팀장

[인터뷰]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기업탐방] 정보보호인식주식회사 - 문승주대표

[교육센터] 부산글로벌IT 교육센터 - 유종우 선임

16. 제16호 : [기고] 법과 정책으로 바라본 개인정보보호 현주소 -전주현

[인터뷰] 금융보안연구원 -성재모 본부장

[인터뷰] 개인정보보호협회 -전진환박사

[기술문서] “ 아래한글 악성코드 분석 ” -안랩 침해대응센터

17. 제17호 : [인터뷰] 테크엔로우 -구태연 변호사

[인터뷰] 중앙대학교 김정덕 교수

[지면임대] 서울 상경기 - 이현우

18. 제18호 : [특별기고] 훌륭한 인증심사원이 되려면 -전주현 보안인닷컴 운영자

[취재기] 지역별 정보보호교육센터 제3권역 부산대학교편

19. 제19호 : [인터뷰]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인식해야 -고승철 수원대학교 교수

[강좌] 쉽게 배우는 암호학이야기 -김지현 부산대 박사과정

[기고] 개인정보보호법 8가지 분석 -이재욱 필라아יתי 부사장

[생각] 보안전문가에 대한 생각 - 최재규 인하공전 겸임교수

[서평] 제로데이 - 유인재 안랩

참여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운영자 올림

보안인닷컴 e-매거진 참여 하신 분

지금까지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인터뷰에 참여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호부터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간략한 글 소개를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 [대문](#)에 각 호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20. 제20호: [강좌] "쉽게 배우는 암호학 이야기" - 김지현
 [기고] 미디어 콘텐츠 소재로서의 보안 - 임효식
 [기고] 사용자 관점에서의 윈도우 8 보안 - 박광수
 [기고]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첫 시험 시행 -전주현
21. 제21호: [인터뷰]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 이경현
 [기고] 3.20사고를 보면서 느낀 10가지 - 전주현
 [기고] "쉽게 배우는 암호학 이야기" - 김지현
22. 제22호: [기고] SK컴즈 개인정보유출사건 첫 패소 - 류호찬
 [기고]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평가 - 함손겸
 [기고] 4월 보안이슈사항 정리 - 이강원
23. 제23호: [인터뷰] 정보보호전문가 CEO와 소통 잘해야 - 박춘식
 [기고] 국내 인터넷뱅킹의 보안현황 - 함손겸
 [기고] 지역정보보안 인력양성과 나아갈 방향 - 전주현
24. 제24호 [인터뷰] 선순환을 위한 정보보안 생태계 마련 시급 - 염홍열
 [기고] 보안 = 보험 , 이젠 NO!! - 백진성
 [칼럼] 정보보안기사 1회 시험 후기 - 전주현

참여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운영자 올림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 원고 모집

보안인닷컴에서 매월 무료로 발행하는 e-매거진 [보안인]에서는 보안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시길 분들은 magazine@boanin.com 이나 boanin@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실어 드리겠습니다.

보안은 실천이고 문화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보내 주실 원고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보안이슈 및 동향 -기술적 분석
- 우리 회사 보안 실천 사례
- 나의 보안전문가 도전기
- 내가 공부한 보안 이론
- 보안 솔루션 소개
- 보안관련 책 소개 및 후기
-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분석
- 해외 보안소식
- 보안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석 후기
- 기타 보안전문가 인터뷰
- 회원들의 소소한 일상

이외에도 보안에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 및 관련 글 보여 주셔도 됩니다. 원고 마감기간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매월 초에 무료로 배포되는 보안인닷컴 e-매거진 [보안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인닷컴 회원분들과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magazine@boanin.com